



155년을 뛰어 온 대학, 가슴이 뛰는 대학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1 입학사정관제 vol.3



155년을 뛰어 온 대학, 가슴이 뛰는 대학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자서전이다

잠재능력우수자(인문학부, 윤이나)
나의 성장과정 하나하나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다

특기자(영어영미문화, 김민정)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듯이
이 전형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기회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사회과학부, 이정화)
나에게 대학 합격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Talent다

특기자(행정학, 최치혁)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셀카다

잠재능력우수자(경영학부, 이득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하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이다

특기자(국제학부, 이슬)
내 한계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링크이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종교학과, 김찬중)
학생들을 수능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최무선의 화약과 같다

잠재능력우수자(인문학부, 김기성)
최무선이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나도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을 통해 나의 꿈을 향해 신호탄을
멋지게 쏘았다

부모님이다

잠재능력우수자(사회학, 박진서)
나의 잠재력과 능력을
가장 잘 알아보기 때문이다!

파티다

잠재능력우수자(사회과학부, 이석현)
평상시 숨어있던 끼들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 파티와 입학사정관제의
매력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다

잠재능력우수자(생명·환경공학부, 최윤)
바깥으로 보여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바다를 걷다 우연히 발견한 전복이다

잠재능력우수자(사회과학부, 김보미)
뜻밖에 소중한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세주다

잠재능력우수자(자연과학부, 정다희)
나의 숨은 능력을 발견해주고
합격을 시켜줬기 때문이다

행운이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사회과학부, 홍진선)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낚시다

잠재능력우수자(영미언어문화학부, 강보미)
나조차 알지못한 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서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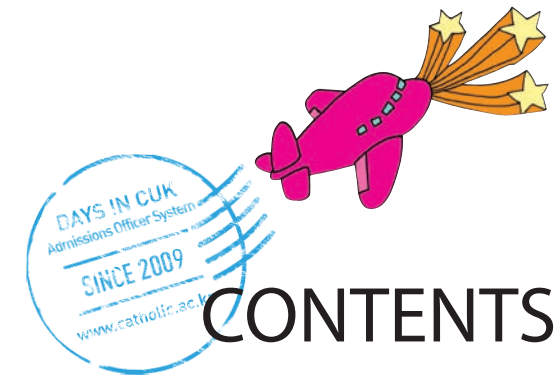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정보통신전자공학부, 송정환)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고,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돋보기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디지털미디어, 백승민)
돋보기처럼 숨어있는 인재를 잘 보기
때문이다

온도계다

잠재능력우수자(자연과학부, 박은혜)
내 열정의 온도를 측정해주고 채택해
주었기 때문이다



CONTENTS

02 학생들이 말하는 입학사정관제



Are you ready?

06 여행준비를 위한 Tip

- 나를 돌아보는 Check List를 검토해보자!
- 나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자!

08 여행준비를 위한 Advice

- 당당한 나를 말하다 / 꿈을 위한 도전
- 열정적인 나의 제자 / 잠재력을 가진 창조적 학생과의 만남
- 입학사정관이 룸메이트 하고 싶은 학생 / 특별한 나의 친구

Let's start!

12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가기

14 입학사정관 전형 소개

16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을 찾아라!

18 입학사정관제란 무엇인가?

19 입학사정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20 입학사정관제 여행 중 금지구역!



So wonderful!

24 즐거운 여행의 추억

- 6,600일간의 여행 - 인문학부 고성민

26 여행이 가져다준 즐거움

- 가톨릭대학교의 다양한 학과에서 꿈을 펼치자!
- 다양한 Program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친해지자!

30 입학사정관제 Q & A



지금부터 그 기대되는 여행 속으로 Go-Go!



여행준비를 위한 Tip

나를 돌아보는 Check List를 검토해보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체크!

- | | Yes / No |
|--|---|
| 1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완하려고 한다. | ☐ ☐ |
| 2 꼭 하고 싶은 인생의 목표 달성을 공부의 목적으로 한다. | ☐ ☐ |
| 3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 ☐ |
| 4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 ☐ ☐ |
| 5 공부할 때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 한다. | ☐ ☐ |
| 6 계획을 세운 대로 공부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계획한 대로 한다. | ☐ ☐ |
| 7 원하는 수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 8 학기마다 과목별로 학습목표를 정한다. | ☐ ☐ |
| 9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매주 학습계획을 세운다. | ☐ ☐ |
| 10 등하교시간 등 짧은 시간도 그냥 지나치면 아까워한다. | ☐ ☐ |
| 11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다. | ☐ ☐ |
| 12 공부전에 목차를 보며 공부할 내용의 틀을 파악한다. | ☐ ☐ |
| 13 가장 효율적인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 | ☐ ☐ |
| 14 배운 내용을 다른 과목이나 생활 속 경험과 관련짓는다. | ☐ ☐ |



진단하기!

Yes가 10개 이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우수.

Yes가 5~9개
☞ 스스로 공부하려 하지만 실천력 부족, 학습법과 태도를 재점검하고 지속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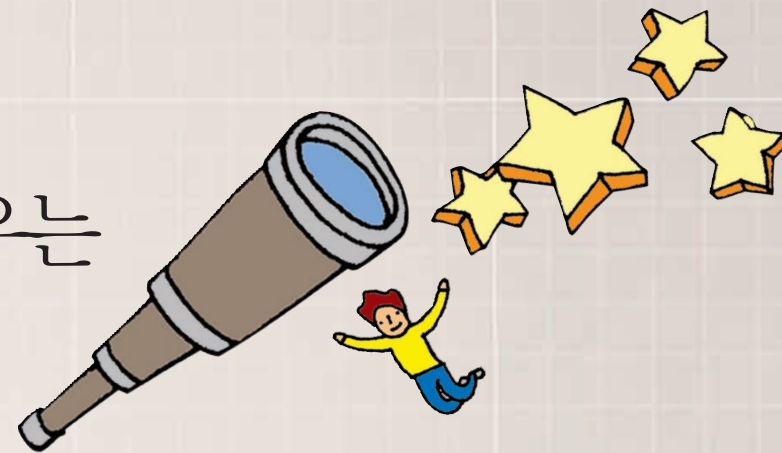
Yes가 4개 이하
☞ 타율적 주입식 교육에 익숙, 스스로 공부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기회를 가져야 함.



나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자!

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

내 잠재력을 찾아내고 끌어내고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영미언어문화학부, 강보미

자신이 평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 분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설계를 해 나간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자연과학부, 박은혜

내 꿈을 향한 확신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능력!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흥미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손동환

솔직하고 성실한 마음, 순발력, 창의력! 매사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틀에 박힌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꾸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생명과학과, 윤상인

첫째는, 목표와 꿈이다. 자신의 목표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자신감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데, 이때 자신감이 중요하다. 세번째는, 꾸준함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꾸준히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위한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롤모델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사회과학부, 이정화

내가 잘 할 수 있고, 자신있고, 나에게 맞는 부분을 아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자신이 무엇에 가슴이 뛰고 즐겁게 임하고 있느냐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경영학부, 박소진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다. 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어떤 점을 부각시킬지 판단하여야 한다. 합격하는 사람들 모두가 강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강점을 잘 내세울 줄 알고, 약점 보완을 잘 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사회과학부, 홍진선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김기성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심층적으로 심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변연계학문에도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경영학부, 윤동희

리더십! 주어진 상황이나 경험들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활동들을 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과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인가? 또한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을 기르게 될 수 있다. 단순히 이끄는 리더가 아닌 어떤 사람과 있어도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앞의 경험들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것 같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윤이나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이다. 공부라는 한 우물만 파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입학사정관제 준비생들은 포트폴리오(물론 우리학교는 포트폴리오가 없지만), 자기소개서, 면접, 내신, 생활기록부까지 다 준비해야 한다. 거기다가 성적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의 편견과 오해 (재는 쉽게 대학을 간다거나 상으로 혹은 자격증으로 간다는)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기자전형 동아시아언어학부, 이승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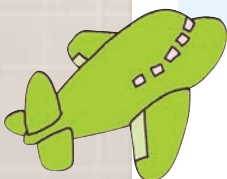
일단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잠재적인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기자전형 국제학부, 이슬

자신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생명·환경공학부, 최윤

자신을 알아보는 것과 발표를 자주 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선 나 스스로를 관찰했을 때, 나는 이과지만 문과적 성향이 짙어서 수리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탓에 심리학과같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으로 단점을 승화시켰다. 한편 모든 발표를 기회로 활용하자. 면접은 적은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에 거울을 보며 멘트를 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학교수업시간에 하는 작은 발표들이 면접과 유사한 발표연습이라 생각한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윤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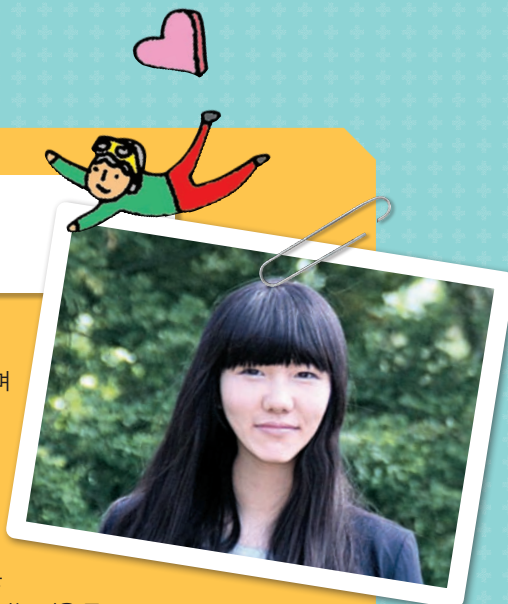
당당한 나를 말하다

신경이 예민해져 누가 건드리기만 하여도 팍 하고 폭발해버릴 것만 같던 고등학교 3학년 학기 초, 뉴스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왜 도대체 또 전형을 만드는 건데? 도대체 입학사정관제가 뭔데?" 하며 짜증을 내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차피 우리에게겐 상관없는 전형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학생들도 있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하면서 입학사정관제로 타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 나에게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 후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우연히 응모하여 당선된 경남 청소년 문학상을 계기로 중학교 2학년 말부터 나의 진로를 국어국문학과로 정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읽은 정지용 시인의 시에 충격을 받았다.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고, 그의 시의 원천이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듣고 무교임에도 가톨릭 신앙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가톨릭대학교에 지원 원서를 넣었다.

가톨릭대학교에 원서를 넣는 동안에는 너무나 불안했다. 다른 대학교는 허용해주는 포트폴리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려고 애썼다. 우리 학교는 수상실적에 상을 다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상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담임선생님께 다 가지고 가서 생활기록부 한 귀퉁이에라도 기록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 상을 들고 학교에 갔을 때는 수능을 앞두고 예민해진 아이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받았다. 내가 이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일은 고양예고 편입 포기와 아버지의 위암 판정박에 없었지만, 이제는 3가지라고 말할 만큼 수시기간은 지옥 같았다. 그래서일까? 면접을 치른 후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거닐었던 곳이 정말로 내가 다닐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발표 날, 모의고사를 쳤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쉬는 시간만 기다려졌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급하게 문자를 확인했는데, '가톨릭대 합격자 확인하세요.'라는 문자 뒤에 엄마의 '이나야, 합격 축하한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수시기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많이 울었다.

어느 영화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어른들은 가능성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불안이라 부른다는 말을 듣고 공감했던 때가 떠올랐다. 대학합격이라는 네 글자는 내 고등학교 생활을 정리해주는 한 단어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가톨릭대학교는 입학 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타 대학보다 체계적인 선발방식을 가지고 있고, 더 전문적인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계신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불안에 떠는 과거의 나와 같겠지만, 내년에 우리 학교 캠퍼스를 거닐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가톨릭대학교
윤이나학생 어머니

꿈을 위한 도전

대학입시의 무거운 짐을 안은 딸아이는 나에게 종종 고3 엄마 맞느냐고 물었다. 직장생활을 핑계로 관심 두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사실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어느새 고3 수험생의 엄마가 되고 보니 스스로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주어진 문항에 글자 수를 제한해서 서술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지간히 까다로웠다. 짐을 쫓기 위해 커피를 한 사발씩 마시며 뜬눈으로 준비하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평평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각자의 꿈을 위해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온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전국의 고3 학생들을 생각하면 딸의 스펙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표현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했기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기로 하였다. 수시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였기에 수능 준비가 다소 미흡하였다. 반드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념하는 딸과 나는 준비과정에서 칼날을 세운 말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했다. 나의 경험으로, 입학사정관제는 아직 미흡한 시작단계이지만 성적보다 개인의 잠재력과 특정분야의 소질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꿈을 위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고 여러 경험을 하며 미미리미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정해놓고 대학에서 원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그 학과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그런 공부는 훗날 자기의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딸아이는 입학사정관제로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노랗게 잘 여문 햇살과 함께 유쾌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큼한 꽃망울을 피우고 있다. 청초한 꽃망울의 작은 떨림처럼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봉림고등학교
국어교사 정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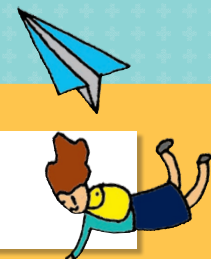
열정적인 나의 제자

윤이나 학생을 표현하자면 '열정'과 '잠재력'으로 압축할 수 있을 듯하다.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자신이 '글쓰기의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재능을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갈고 닦아 보석으로 만들어 보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그 결과 윤이나는 고교 3년간 1년마다 나날이 성장했다.

열정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문예교사로서 재직했던 지난 3년간 윤이나 학생의 이름을 가장 많이 접했다. 글쓰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보통 입학하려는 대학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것만을 선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윤이나 학생은 자신의 소질을 보여줄 수 있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큰 대회는 물론이고 작은 지면에서조차도 충분히 열성을 보여주었다. 한 예로 이나는 학교 교지에 3년 내내 자신의 글을 흔쾌히 기고하였다.

처음에는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보였다. 글 내용도 개인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으로 시선을 확장해 나갔다. 더불어 자신의 재능이 성장하는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완성했다. 자신의 재능이 이만큼 성장해왔고, 더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다.

매사에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 자신의 재능을 믿고 성장해 나가는 이나의 열정을 보며 이나의 미래가능성을 점쳐본다. 글쓰기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드디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앞으로 이나의 몫이 컸으면 좋겠다.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택동 교수

잠재력을 가진 창조적 학생과의 만남

가톨릭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은 잠재능력우수자전형입니다. 2008년부터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을 도입하여 점수로 표시되는 학업 성적만이 아닌 학생의 잠재된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잠재능력우수자전형으로 선발된 2009학년 학생들은 이전 전형에서 선발된 학생들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적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이나 학생은 이러한 잠재능력우수자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입니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의 면접평가는 인터뷰와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자기보고서의 내용이 결과서로 정리되어 2단계 인터뷰 및 토론평가 자료로 쓰여집니다.

윤이나 학생은 인문학부 학생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결과서에 의하면 윤이나 학생은 인문학적인 호기심과 소양을 갖춘 학생이었습니다. 창조력과 문학적 상상력, 논리력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생활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뷰평가에서 학생의 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소양, 열정을 질의하였습니다. 역시, 고교 교사의 평가와 같이 뛰어난 상상력과 열정, 바른 태도를 갖춘 학생이었습니다.

토론편가는 윤이나 학생을 포함하여 3명의 학생이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거부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 중 좋은 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교시절의 독서량과 사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이나 학생처럼 성실하고 창조력 있는 학생이 가톨릭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본교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경험을 통해 4년 후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윤이나 학생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승정

입학사정관이 룸메이트 하고 싶은 학생

나는 입학사정관으로서 '룸메이트 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 좋은 룸메이트는 내가 리포트 쓸 때는 아낌없이 조언해줄 수 있는 비판력과 논리력을, 내가 울고 있을 때는 배려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삶에 지쳐 있을 때 활력을 줄 수 있는 열정을 가진 학생이다. 내가 본 윤이나 학생은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이다. 지금은 학보사 기자로, 가톨릭대 홍보도우미로 바쁘게 학교 곳곳을 누비며 사람을 만나고 글을 쓰고 있을 윤이나의 모습이 보인다. 고3임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창원에서 서울까지 왕복 8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좋은 경험은 소중한 재산'이라고 기술했던 자기보고서를 보고,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학생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윤이나의 특성은 인터뷰 및 토론평가에서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차이'로 인해 '차별,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사람을 나누어 1+1은 2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는 자기보고서의 기록과 그에 걸맞은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실적을 보면서 가톨릭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윤이나는 정지용의 시에 심취하면서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본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경남문학관 문예대학에서 '시와 수필 창작 실기' 수강, 문학관 기행, 각종 백일장 참가 등 문학에 대한 꿈을 고등학교와 지방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간 점이 윤이나 학생을 돋보이게 하였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도 '창조력과 문학적 상상력, 논리력이 우수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우리가 윤이나 학생을 선발한 이유는 이렇듯 '각종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의 수상 실적이 아니라 '인문학도로서 사회와 삶을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이다. 윤이나 학생이 대학 입학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들로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입학사정관으로서 기쁘고 흐뭇하다.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이다정

특별한 나의 친구

20살이 된 나에게 대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였다. 익숙하던 친구들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동반한다. 한 학년에 400명 정도였던 고등학교에 비해 학년 당 1,000명이 넘는 대학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과연 이 중에서 나는 누구와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와 집만 오고 가던 나에게 가까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나를 만났고 이나를 통해서 지금 함께 지내는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게 되었다. 이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처음에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런 이나를 보며 '아, 역시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이나가 없으면 의사 진행이 더뎌지고 친척이 안 될 정도로 이나는 통솔력과 리더십이 있다. 나 역시도 학생회 임원을 하면서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는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는데, 임원경력이 한 번도 없다는 이나의 말이 가끔 거칠거칠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같이 지내는 친구들의 수가 많으니 의견이 분열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나는 우리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기분 상하지 않게 모두의 의견을 조절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 기간부터 우리들은 이나의 의견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놀면서 만난 우리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현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특히 효과를 본 부분은 영어 스테디 그룹인데, 문법이나 숙어를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체크하기 때문에 내가 놓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서 영어 시험을 쉽게 치를 수 있었다. 또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는 분위기에 힘을 얻게 된다. 대학생활에서 뒤처지는 친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는 것도 이나의 몫이다. 함께 한지 두 달도 채 안됐지만 이나는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표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구들의 사진과 그 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재밌었던 일들로 표지를 만들어서 웃음을 주고 있다. 그 디자인을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놀랄 때가 있다. 창의력이 대단하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쓸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이나를 보면서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나는 정말로 사소한 것들까지 눈에 잘 보이는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알아채고 물어봐주고 고민도 들어주면서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해주고, 안 좋은 일은 함께 이겨내 준다. 이나에게 이야기를 하고나면 뭔가 속이 시원하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준다. 이나의 성격을 보면서 성적 좋은 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나를 보면 '아, 저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너무 착해서 자기 몸이 아파도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나양, 건강관리 잘하고, 고마워.



목적지를 정하고, 최적의 방법을 정했다면
입학사정관제를 향해~

Let's start!



완벽한 여행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입학사정관제를 향해 떠나는 여행은

미래를 향해 떠나는 신나는 탐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과

주의사항만 먼저 알아두면 만사 OK!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가기!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

GO!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만학도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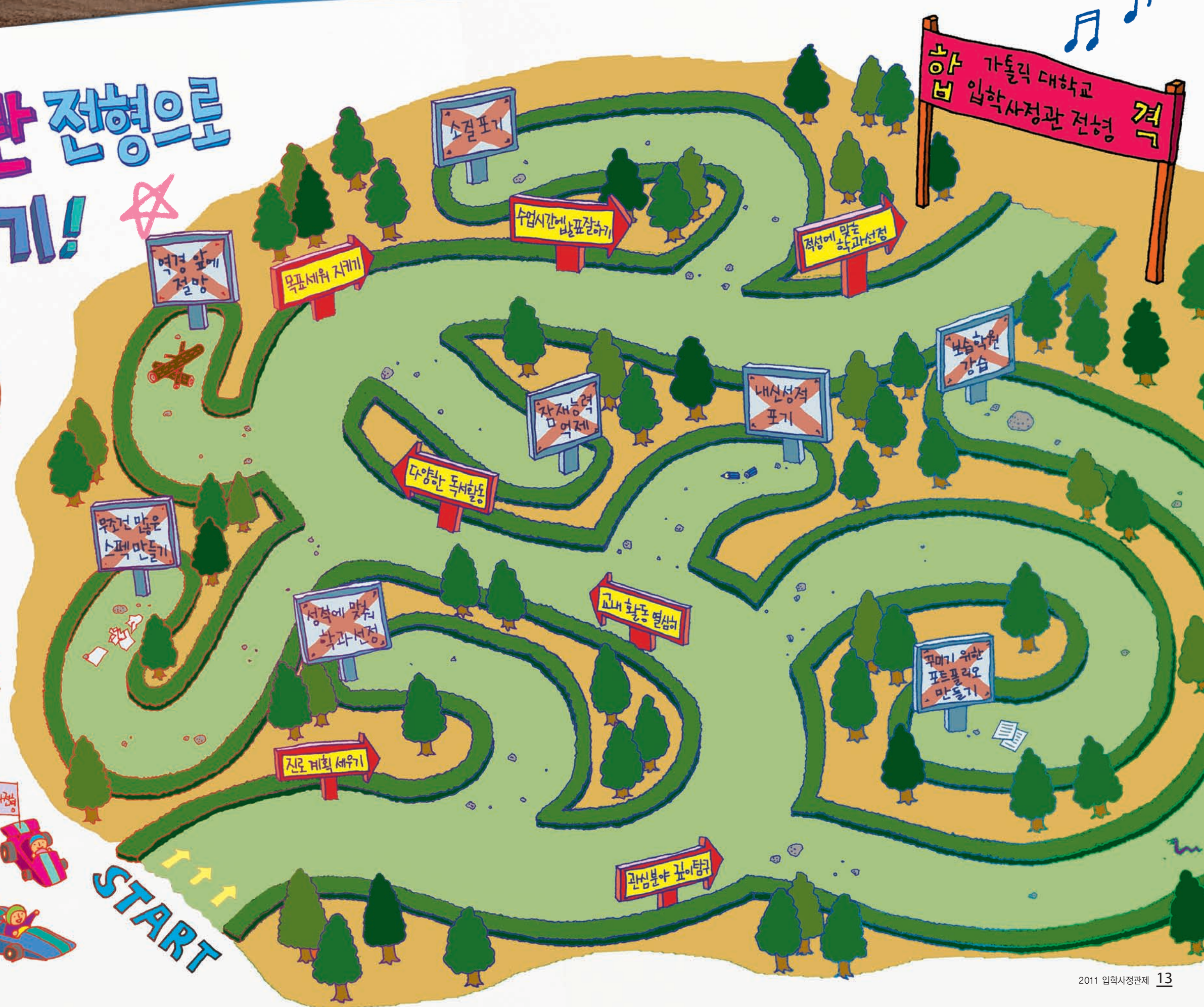
가톨릭교회
지도자
속천전형

글로벌
리더전형

수도자립

전문계 고교
출신자전형

교육기회
관동전형



가톨릭 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격**



← 입학사정관 전형 소개

수시1차

잠재능력우수자전형(127명)

1단계 - 서류평가 100% (3배수 선발)

잠재능력자기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전공적합도, 인성, 다양한 활동경험, 봉사 등을 평가해요!

2단계 - 1단계 성적 60% + 인터뷰 및 토론평가 40%

본교에서 마련한 인터뷰 및 토론 기초자료, 잠재능력자기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잠재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평가해요!

글로벌리더전형(82명)

1단계 - 서류평가 100% (3배수 선발)

글로벌리더 활동자기보고서, 글로벌리더 활동자기보고서 입증자료에서~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 열정, 학업능력 등을 평가해요!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구술 40%

본교에서 출제한 면접·구술문항, 글로벌리더 활동자기보고서 등으로 전공적합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평가해요!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44명)

1단계 - 서류평가 100%(3배수 선발)

추천서, 자기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학수업이수 준비도, 인성, 추천도, 봉사 등을 평가해요!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구술 40%

본교에서 출제한 면접·구술문항, 자기보고서 등으로 전공적합도, 문제해결력,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평가해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늘어났어요!

외국어로 수강 가능하고,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이
탁월한 인재를 선발해요!

지원자의 종교나
신앙과는 무관해요!

올해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처음 실시해요!

교육기화균등전형 (17명)

1단계 - 서류평가 100% (3배수 선발)

자기보고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역경극복, 전공적합도,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평가해요!

2단계 - 1단계 성적 60% + 인터뷰 및 토론평가 40%

본교에서 출제한 면접·구술문항, 자기보고서 등으로 전공적합도, 문제해결력,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평가해요!

정시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 (69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30% + 서류평가 70%

자기보고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해요!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0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40% + 학교생활기록부 30% + 면접·구술 30%

최저학력기준은 「가톨릭대학교 입학안내」책자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도자전형 (13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서류평가 20% + 면접·구술 50% + 논술 30%

만학도전형 (25명)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서류평가 20% + 면접·구술 50% + 논술 30%

수도자전형과 만학도전형의 지원자격은 「가톨릭대학교 입학안내」책자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톨릭대학교 입학안내」책자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변경하여 실시해요!

최저학력기준이 있어요!

수도자전형과
만학도전형은
대상의 제한이
있어요!



대학생활을 찾아라!

★ 나, 어디있게~?



생명과과학
윤상인



경영학부
윤동희



컴퓨터정보공학부
유용우



사회과학부
이석현



사회과학부
이정화



인문학부
김기성



자연과학부
정다희



자연과학부
박은혜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장 최창완

입학사정관제란 무엇인가?

입학사정관제 출발역

-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의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발전전략 및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한 다면적 선발 체제입니다.
-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이외에 재량활동, 특별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과 이력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 발전가능성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충전소

-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성장과 성취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학업 성취자료, 에세이, 인터뷰 등)를 공간으로

학생의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 입학사정관은 대학입학전형연구, 고교특성연구 등의 연구활동과 현장방문, 진로상담 등을 통해 고교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종착역

-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의 계기가 되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입학사정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은 대학이나 학부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00여 개의 대학이 있고, 수백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 많은 대학들이 건학이념이 다르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부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것과 더불어 사회가 더 많은 다양한 인재들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학과도 점차 다양한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하다'의 개념이 성적 뿐 아니라 교과 외 활동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우수한 학생'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기준(점수)으로만 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맞춤형 인재선발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입학사정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 및 학부의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선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나 자료를 관리·축적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입니다. 입학사정관은 건강한 중등 교육을 위해 고교정상화에 기여해야 하며 이러한 또 다른 목적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평가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대학의 건학이념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형방법을 연구·개발 하는 것이 두 번째 업무입니다. 포괄적으로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도록 전형을 기획하였다면 특수한 인재를 원하는 학교의 요구에 맞추어 특별전형을 연구·개발하는 것 또한 입학사정관의 역할입니다.

효과적인 전형방법을 연구해서 개발하였다면, 이러한 전형방법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입학사정관의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자료의 심사·평가를 입학사정관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심사·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판가름하는 것 또한 입학사정관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재들이 해당 대학에 잘 적응하고, 본교 학생으로서 그 우수함을 잃지 않고 더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과정은 비단 입학사정관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여행~ 이런 길을 가지마세요!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컴퓨터정보공학부, 유용우

우선 고3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물론 그런 학생들은 모두 1차 서류에서 탈락할 것이다. 내가 수험생 때 주위 몇몇 친구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입학전형 중 하나로만 생각해서 마구 지원했다가 마구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다. 입학사정관제는 준비된 학생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제도이다. 준비되지 않은, 단지 수능을 위한 수능형 고3이라면 이 전형을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자연과학부, 정다희

진심에서 우러나서 모든 프로그램들에 참가를 해야 할 것이다. 단지 대학을 가기위해서 한다면 입학사정관들도 진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영미언어문화학부, 강보미

어느 전형이던간에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안된다. 그리고 잠재능력우수자는 토론과 면접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으면 절대 안된다. 조금은 거만할 수 있지만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충전해야한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자연과학부, 박은혜

자신이 그 동안에 했던 노력을 감추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이아름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자신에 대해 자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칫하면 타인(이 경우 입학사정관)의 눈에 거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생명과학과, 윤상인

단순히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급하게 준비해서는 안된다. 또한,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경영학부, 박소진

나에 대한 정보를 과장해서는 안된다. 사실적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솔직하게 이끌어 낼 줄 알아야한다. 내 경우에도 별다른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고교 3년 내내 참여했던 프로그램이나 경시대회 등에 참여했다는 내용들로 나의 열정을 설명하였다.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나만이 아는 경험들은 그 가치를 발휘한다. 입학사정관님들께서도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신다. 따라서 거짓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김기성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때 남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스펙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고 고교생활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행동한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입학사정관제 여행 중 금지구역!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경영학부, 윤동희

의무의식에 입각한 활동과 강압적인 활동이어서는 안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교과 외에 내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시키는 자의 요구일 뿐입니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윤이나

먼저 자신의 재능부터 알아야 합니다. 새로 생긴 전형이니 틈새를 노린다고 무조건 스펙만 쌓고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목표없이 스펙만 쌓다가 수시기간에서야 전공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기자전형 국제학부, 이슬

절망

특기자전형 동아시아언어학부, 이승봉

그 무엇도 배제해선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학생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과 능력을 보기 때문에 학생의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배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사회과학부, 이정화

다른 이들, 또는 상황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생명환경공학부, 최윤

자신을 낮춰서도 높여서도 안된다. 무작정 자신을 높이는 것은 거짓이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절대로 낮추지 말라는 것이다.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은 물론 서류에서 학생들을 파악하신다. 하지만 면접평가와 서류평가는 별도로므로 낮은 내용 그 자체를 기억할 수 있다. 자신의 레벨은 5이지만 예의상 3으로 말했다간 자신의 위치는 3이된다.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악기 몇 개 하실 수 있으세요?"란 질문에 기타 조금 칠 줄 알고 피아노 학원 다녔다 해서 2개라 할 수 없다. 결국 어느 수준에 오르지 못한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말자. 잠재력이 부족하기에 지금 가진 능력이 그 수준에 위치함을 생각하자.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송정환

혹시나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학원을 다녀서 면접을 공부하던지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학원을 다니면 안된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 방법을 사용하면 합격하더라도 대학에서 적응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사회과학부, 홍진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장점만 언급하는 것.



So Wonderful!

입학사정관제라는 짜릿한 여행을 마음껏 즐기셨나요?

성공적인 여행을 마친 선배들의 행복한 여행후기를 보면서

입학사정관제가 가져다 줄 특별한 신세계를 상상해보세요~



즐거운 여행의 추억

6.600일간의 여행

인문학부 고성민

나는 여기에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여행기를 적어보려 한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할 것이다. 또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의심하기도 할 것이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 채 어디서부터 어떤 길로 출발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매 순간마다 만나는 갈림길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여행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걸어온 길은 그저 참고만 될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나의 길을 따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 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점 명심하고 읽어주길 바란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 주길 바란다.

준비물

- 1 뚜렷한 목표와 비전
- 2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끈기
- 3 긍정적인 마인드
- 4 할 수 있다는 자신감
- 5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여행시 주의사항

- 1 자신감이라는 나침반을 잃으시면 길을 헤매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용기라는 이동수단을 잃어버리시면 여행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좌절이라는 늪에 빠져도 여러분이 준비하신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빠져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으셨다. 목발 없이는 보행이 힘든 신체장애 2급 장애를 앓게 되셨고 비교적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 오셨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여행에 꼭 필요한 준비물인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끈기를 배웠다. 아버지는 비장애인데도 오르기 힘든 한라산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끝까지 완등하셨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신 철인이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한사람이다. 어머니는 그런 날 위해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다.

난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단점이 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머니는 이러한 단점을 고쳐주시기 위해 매일 일기쓰기를 권하셨다. 일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단점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일기 쓰는 아이는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가 한글 문서 파일로 2,000여 개가 넘는다. 이런 나의 일기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 소개되었고 큰 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우리교육 희망 찾기라는 무대에 진행자로 발탁되었고 당시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을 무대 위로 부르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셨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풍부한 성량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확한 발음과 임기응변을 통해 진행자로서의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 후 많은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이런 경험으로 아나운서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라는 준비물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MC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피날레인 폐막식을 장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 일기는 글쓰기 실력도 높여주었고 진행멘트를 매끄럽게 쓰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3년간 폐막식 MC자리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나를 눈여겨보시던 MC지도 선생님께서 '꿈나무통일체험한마당'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전과는 조금 달랐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나는 여러 행사의 진행을 꾸준히 맡아온 경험 많은 베테랑 고등학교 2학년 누나와 파트너로서 진행해야 했다.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누나와 같이 서있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내가 누나와 동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연습, 또 연습이었다. A4용지 열 장이 넘는 진행멘트를 외우고 행사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한 후 관중들의 시선을 내게로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웃으며 진행하기 위해 표정연습을 하다보면 양쪽 볼에 마비가 올 때도 있었고 꿈에서조차 멘트를 잊을 수 없었는지 잠꼬대로 진행멘트를 토해 낼 때도 있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꾸준히 실력을 길러갔고 인정받는 진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슬럼프는 있었다. 변성기가 찾아온 것이다. 목소리는 마음대로 낼 수 없었고 조금만 많이 써도 다음 날 목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쉬어 버렸다. 큰 무대에는 설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대에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교내 축제 MC와 지역교육청 예술제 MC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방송부에 지원하여 아나운서로서 교내 방송을 진행하고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꿈을 위해 대학의 어떤 학과에 지망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는 아나운서를 육성하는 학과나 수업이 없다. 하지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선 올바른 우리말과 표준어 발음을 구사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기에 국어문과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세우고 닥치는대로 책을 읽어나갔다. 이 무렵 나의 일기는 내 하루 일과를 적는 것에서 독서일기로 탈바꿈해갔고 좀 더 체계적으로 독서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쓴 독서보고서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독서교육실천 사례연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독서와 더불어 취미생활로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변성기로 인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진 나는 마술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배워 나가고 있었다. 또한 진행을 할 때 갑자기 닥치는 돌발 상황에서 무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의 마술을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히든카드를 마련한 셈이었다. 변성기가 왔던 이 무렵, 돌이켜 잘 생각해보면 이때는 슬럼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재충전 시키는 기회였다. 자신감을 살리니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강북 인터넷 방송에서 꿈나무 앵커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학교 소식과 행사를 인터뷰하고 동아리나 수상소식을 뉴스형식으로 전하며 내 꿈인 아나운서가 되어보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 아나운서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아나운서로서의 첫 데뷔작을 좀 더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어서 거의 스튜디오에서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난다. 자정이 넘어서 귀가할 때도 많았고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몸이 피곤한 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행복했고 평생 직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다.

재충전의 시간 동안 내가 갖게 된 독서하는 습관을 통해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중학교시절 독서일기로 탈바꿈한 내 일기는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고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술일기로까지 진화하게 되었다. 그 중 나의 주된 관심사는 환경이었고 환경에 대한 논술일기로 환경부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이 수상은 단순히 한편의 잘 쓴 글을 표창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독서와 글쓰기라는 습관을 기특하게 여겨 주시는 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술일기를 토대로 스피치 대회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스피치는 진행과는 또 다른 분야였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진행과는 달리 스피치는 나의 주장을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었다. 혼자 연습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최하는 스피치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돌이켜 보면 앞만 보며 달려온 여정이었다. 6천여 일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을 지나고 나니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시험대였다고 생각되었다. 대학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나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좌우명처럼 되었기에 두려움은 없다.



여행이
가져다준
즐거움

가톨릭대학교의 다양한 학과에서 꿈을 펼치자!

인문·예능계열

선진 문화대국을 창조합니다.

인문학부 - 국어국문학전공, 철학전공, 국사학전공
종교학과
음악과

사회계열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배웁니다.

사회과학부 - 사회복지학전공, 심리학전공, 사회학전공
경영학부 -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법학부 - 법학전공
정경학부 - 경제학전공, 행정학전공
특수교육과(사범계열)

국제계열

국제적인 스케일의 지식이 익어갑니다.

영미언어문화학부 -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미문화전공
프랑스어문화학과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 중국언어문화전공, 일어일본문화전공
국제학부 - 미국학전공, 중국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국제통상전공



자연·생활계열

과학적인 생각으로 인류를 진보시킵니다.

자연과학부 - 화학전공,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생명과학과
생활과학부 - 소비자주거학전공, 아동학전공, 의류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공학계열

다음 세상의 테크놀로지를 꿈꿉니다.

컴퓨터정보공학부 -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시스템공학전공
정보통신전자공학부 - 정보통신전자공학전공
생명·환경공학부 - 생명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디지털미디어학부 - 문화콘텐츠전공, 미디어공학전공

의학계열

의술을 넘어 인술을 배웁니다.

의학과
간호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다양한 Program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친해지자!

Yield Program AO Program Self-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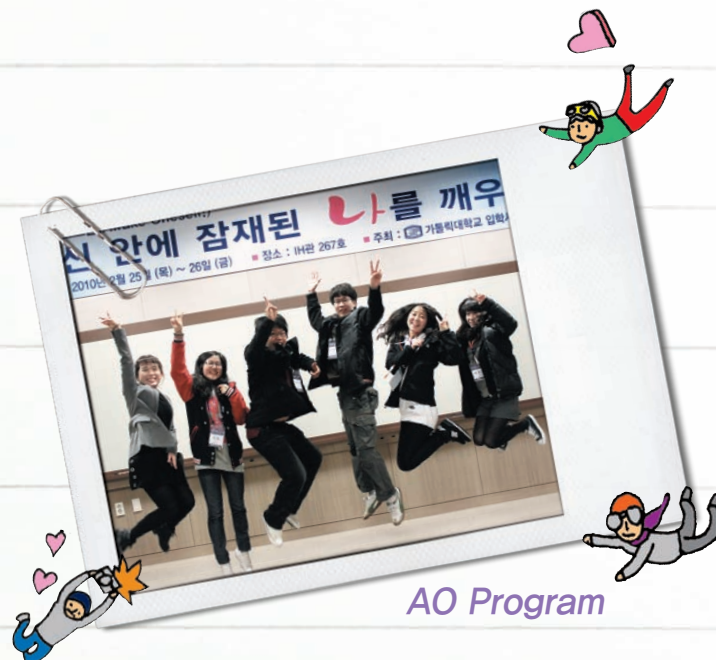
대학에 합격하면! **Yield Program**
대학에 등록하면! **AO Program**
대학생활이 시작되면! **Self-Report**



설레는 Yield Program 속으로 출발하자!

Q. Yield Program이 뭐야?

A. Yield Program은 합격생들이 대학 선택시 '대학 서열과 점수에 의한 선택'이 아닌 '대학의 교육 과정 특성 및 모집단위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학생 멘토링은 재학생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이고 생생한 학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또한 모집단위별 학생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이 해당 모집단위의 합격생들과 학교 시설, 전공별 실험실, 실습실, 학과 및 동아리 소개, 전공 교수와의 면담, 학과 특성 정보 공유 등의 개별적 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들은 학교 탐방 및 멘토링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과 교수 및 선배 재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가톨릭대학교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단다!



가톨릭대학교 AO Program으로 떠나보자!

Q. AO Program이 뭐야?

A. AO란 Admissions Officer(입학사정관)의 약자이자 동시에 Awake Oneself(자신에 잠재된 나를 깨워라)의 약자란다~

Q. 누구를 위한 거야?

A.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학교에서 이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대학생활을 자신감 있게 도전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계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조별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신뢰와 팀워크를 배워나가기도 하지~

Q. 뭘 배우는데?

A.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지성을 개발하는 방법과 잠재력 & 창의성을 기반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올해 프로그램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메시지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법과 찬란한 대학 생활을 위한 교수님들의 친절하고 유익한 강의도 있었어~ 젊은 구글러(Googler) 김태원 선생님의 두드림(Do Dream)강의를 통해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열정도 배웠지~ 이렇게 신선하고 유익하게 짜여진 AO프로그램 덕분에 진정으로 나는 내 안에 잠재된 나를 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Q. 뭐가 좋았어?

AO프로그램은 '대학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집합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 조별 과제를 해나가면서 나와 다른 생각과 내가 예측 못한 생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는데,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내가 생각보다 유연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어. 그래서 AO

프로그램을 끝냈을 때는 내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어렵듯이 알 수 있었어.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해서 좋았던 점은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과,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나의 학교 생활이 힘겨울 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거야. (가톨릭교회추천자전형, 사회과학부, 홍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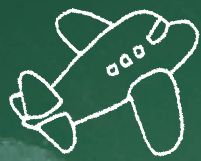
AO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와 같은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김태원씨 같은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인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조별과제를 하면서 다른 학부의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 얼마 전 '영삼성 캠퍼스리포터'를 하게 되어 삼성 임원진과 식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이라고 하니 더 관심을 가지셨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했다는 그 한마디가 이 학생은 한 부분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은 학생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기 때문이었어.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인문학부, 윤이나)

Self-Report를 쓰며 나를 키워보자!

Self-Report는 1년에 한 번씩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성장부분을 기록하는 거야.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합격생 중단 연구」를 진행하여 학업성취, 인성, 봉사정신, 창의성, 학업태도 등을 파악한단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입학 후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가톨릭대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걸맞은 학생 선발에 노력하는 거지. 또한 입학사정관실에서는 학생들이 매년 작성한 Self-Report로 기록을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진로와 발전 가능성 부분을 상담으로 연계한단다. 또 이와 연계하여 2학년 때부터 각 전공으로 나눠지면 전공교수님과도 연계할 예정이란단다. 그리고 우수 Self-Report를 선발하기도 한단다.



입학사정관제



Q & A

입학사정관제의 A-Z 까지 다~ 알려줄게!

가톨릭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 종류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글로벌리더전형,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 만학도전형, 수도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2011학년도 입시에서
387명을 선발함.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어떤 수험생에게 유리할까?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성적과 같은 정량적인
부분 이외의 것들까지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점." 따라서
교과성적 이외에도 학교생활의 다양한 비교과적 활동과
특성들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함.
그러니까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학생, 즉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무엇이지? 어떻게?

정량적 평가 : 과거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봉사활동의 시간, 출결상황의 결석횟수 등
수치화된 정보만을 평가하여 활용한 것.

정성적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서 수치화될
수 없는 내용들을 일일이 읽고 이해하며 평가를 진행,
예를 들면 잠재능력자기보고서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보고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 활동 기록과 함께
연결하여 평가함.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보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수상, 어학능력, 임원활동,
봉사활동, 생활태도, 학업 관련 활동, 학업의 활동 등
보지 않는 것이 없음! 결국 학교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

‘인터뷰 및 토론’은 어떤 점이 중요할까?

말하는 내용이 포인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인 사고
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글로벌리더전형 꼭 어학자격증이 필요할까?

공인어학성적이 지원 자격이 아니므로 어학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 가능함. 다른 활동내역이 없어서
제출서류목록표에 단 한 줄도 기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지원 가능! 단, 제출서류목록표 내용이 없다고 해도
활동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전형은 가톨릭신자만 지원하나?

종교와는 무관 *^^* 2010년 2월 이후 졸업자(재수생)
부터 지원 가능,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가톨릭 사제 수품 5년 이상 된
신부, 수도회 장상(총원장, 관구장, 지부장) 또는
가톨릭계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함.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궁금한 게 너무 많아 T_T

대학은 더 멀고 높은 인생의 목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숨은 잠재능력을 어떻게 평가할까?

입학사정관제가 요구하는 잠재능력은 과거의
성취 결과를 보여주는 증빙 자료를 통해 미래의
잠재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즉 과거의
성취를 통해 미래의 잠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즉 학생의 성장배경, 전공과의 관련성,
결과유출까지의 과정이 핵심 포인트!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하지? 추천서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 자기소개서는
내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정리하여 쓴다.
추천서는 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경험을 들어
진솔하게 설명되어 있으면 굿!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면 면접, 현장실사,
정보요청 등 검증과정을 밟기도 함.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res.catholic.ac.kr/~admit>